

1. <공약 실천계획>

관리번호 **8-①**

상위공약명	북천-횡천-청암-악양-화개 무지개 프로젝트																
실행공약명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사업																
사업구분	임기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예산구분			이행단계					
	임기 내	임기 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민간	예산	비예산	보류 폐기	일부 추진	정상 추진	이행후 계속 추진	완료	이행률	
	○		○				○		○							○	100%
주관부서	문화관광실				담당자				박 밀			전화번호		880-2374			

■ 목 표

-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레일바이크 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업량 : 레일바이크 L=5.3km (레일바이크 70대, 풍경열차 1대)
- 사업비 : 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년 이후
계	7,000	0	0	0	3,800	1,000	2,200	0
국비	2,100				1,000		1,100	
도비	3,330				2,000	1,000	330	
군비	1,570				800		770	
민자	0					-	-	-

■ 연차별 추진일정 및 목표

구분	주요 추진계획 및 목표	목표 달성 여부
2015년	사업기본계획 구상	달성 ('15. 1월 용역 착수)
2016년	폐철도 활용 기본구상용역 완료 실시설계용역 시행	달성/ 기본구상완료, 실시설계 추진중 ('16. 12월 용역 공정율 90%)
2017년	사업시행 및 완료, 운영(5월)	'17.5월 개통식, 현재 정상운영 중 (개통이후 월평균 탑승 관광객 5천명)

2. < 공약 이행현황 >

■ 지금까지 추진 실적 (공약 이행을 : 100%)

- '16. 1. : 폐철도 활용 기본구상용역 시행
- '16. 6. : 폐철도 활용 기본구상용역 완료
- '16. 6. : 실시설계용역 시행
- '17. 1. : 레일바이크 및 풍경열차 제작
- '17. 2. : 사업시행
- '17. 5. : 개통, 정상운영
- '17. 11. : 현재까지 월평균 6천명 탑승

■ 관련 사진 및 자료

경남도민신문
2017년 03월 10일 (금)
07면 사회

하동 북천~양보 레일바이크 5월 본격 운행

꽃양귀비 축제 맞춰 개통...편도 5.3km 4인승·2인승 운행



정물을 보이고 있다. 군은 또 북천역~양보역 중간지점에 있는 1.2km의 이명터널에 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착수하고, 북천역 갤러리,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내달 말까지 이들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5월 초 레일바이크 시험운행을 거쳐 꽃양귀비축제 개막 직전인 5월 10일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날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관련부서 실과소장과 담당계장 등 20여명이 북천역~양보역 5.3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선로 주변 위험요소, 경관조명 설치 상태, CCTV 및 건물목 안전시설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윤상기 군수는 “레일바이크는 남녀노소 모두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보완해서 5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상기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은 레일바이크 현장점검에 앞서 북천면사무소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북천면, 코스모스·매밀꽃영농조합법인 등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꽃양귀비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축제현장을 둘러봤다.

윤상기 하동군수가 북천 꽃양귀비축제가 열리고 있는 북천역 폐철도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있다.

하동 북천 꽃양귀비축제가 열리는 오는 5월 경전선 복선화로 폐선된 옛 북천역~양보역 구간에 관광 테마형 레일바이크가 본격 운행될 전망이다.

하동군은 5월 12~21일 10일간 북천면 직전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꽃양귀비축제에 맞춰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를 정상 운행기로 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사업은 경전선 복선화와 함께 폐선된 옛 북천역~하동읍 섬진철교 22.3km 구간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폐철도 시설물 활용 및 관리 협약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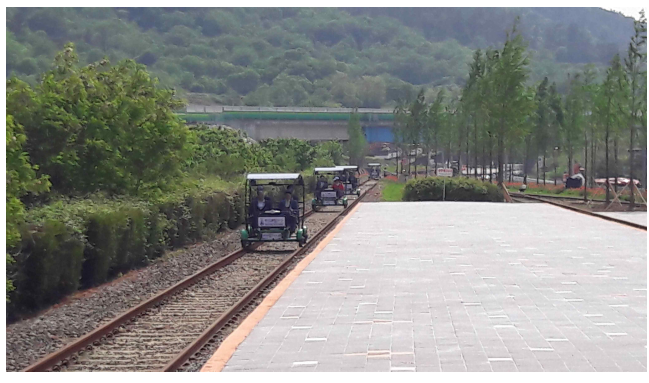
이에 군은 2019년 완공 목표로 옛 북천역~양보역 레일바이크와 북천·양보·황천·하동역 등 4개역사 및 하동역~섬진철교 구간의 공원·산책로·주차장·카페 등을 조성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이들 사업 중 옛 북천역~양보역 편도 5.3km의 레일바이크를 북천 꽃양귀비축제 개막에 맞춰 개통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북천역~양보역 구간에 운행될 레일바이크는 4인승 45대와 2인승 25대 등 최신형 레일바이크 70대이며, 관광객 수송을 위한 토마스 열차 1대도 도입된다.

군은 이를 위해 레일바이크와 기관차 1량·객차 2량을 갖춘 이용객 수송용 열차 제작과 함께 차고지·정비고·승강장 등 각종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들어가 현재 20%의 공

이동윤기자
15.9 X 20.1 cm



■ 향후계획

- 주변 편의시설 보완 및 풍경열차 업그레이드
- 터널 경관조명 추가 설치
- 양보역 주변 라벤더 공원 조성, 선로주변 경관 개선 추진